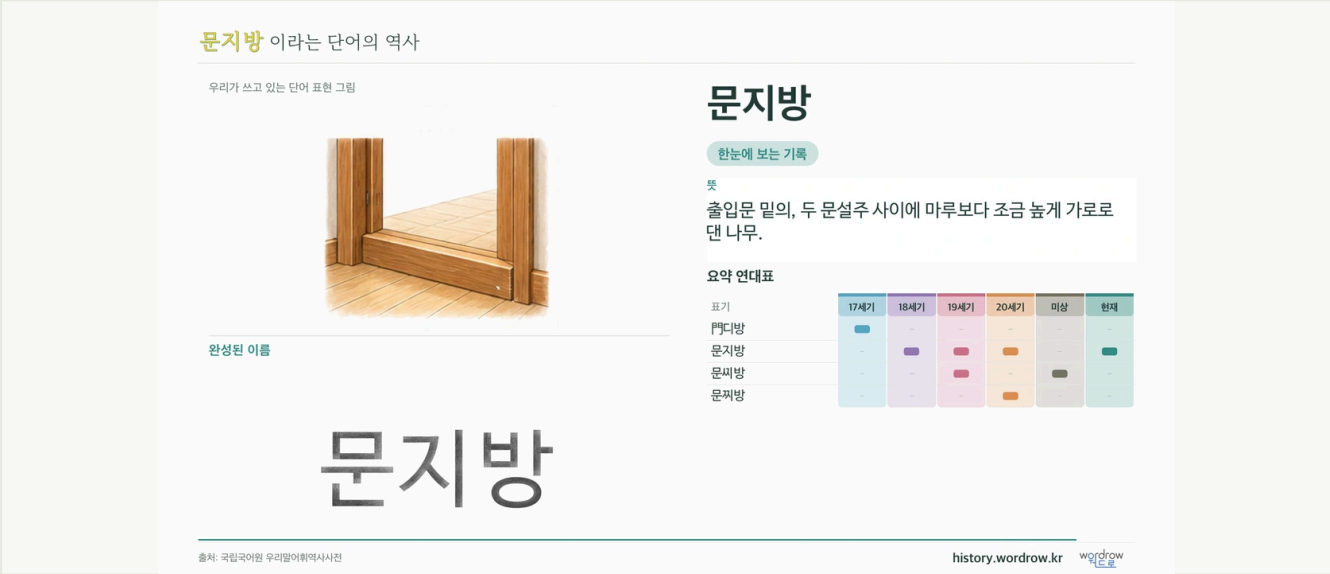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문지방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1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9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문지방'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문지방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문지방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門디방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문지방 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문씨방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
문찌방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門디방
  17세기
- 문지방

18세기19세기20세기현재

- 문씨방
  19세기미상
- 문찌방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門디방, 문지방, 문씨방, 문찌방

문지방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문지방’의 옛말인 ‘門디방’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다른 언어와 한자음

‘門디방’은 한자어 ‘門(문)’에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어 ‘지방(地枋)’의 당시 한자음 표기인 ‘디방’이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따라 ‘디방’이 ‘지방’으로 바뀌어 18세기에 ‘문지방’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19세기의 ‘문씨방’은 제2음절 초성의 된소리를 ‘ㅆ’으로 표기한 것이다. 20세기에는 ‘ㅈ’의 된소리를 ‘ㅉ’으로 표기한 ‘문찌방’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문지방

전체 용례 1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門디방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門디방

출처 1690 역어유해 상:18ㄱ

용례 01

문헌 용례

門坎 門디방.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세기 문지방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문지방

출처 1748 동문유해 상:35ㄱ

용례 02

문헌 용례

門限 문지방.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63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10ㄴ

용례 03

문헌 용례

ᄎᆞ마 문지방을 넘디 못ᄒᆞ고.

현대어 풀이

차마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출처 1777 명의록언해 ?:12ㄴ

용례 04

문헌 용례

ᄯᅩ 문지방을 두ᄃᆞ리셔.

현대어 풀이

또 문지방을 두드려서.

19세기 문지방, 문씨방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문지방, 문씨방

출처 1880 한불자전 254 용례 05

문헌 용례

문지방.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5 천로역정 ?:134ㄴ 용례 06

문헌 용례

칙문 문지방을 넘어 서셔 ᄌᆞ셰히 본즉.

현대어 풀이

책문 문지방을 넘어 서서 자세히 보니.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22 용례 07

문헌 용례

문씨방 [棖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9 매일신문 8월18일 1면 용례 08

문헌 용례

문지방 곳흔 것으로 대들보를 ᄃᆡ신 ᄒᆞ야 쓰자 ᄒᆞ면.

현대어 풀이

문지방 같은 것으로 대들보를 대신 하여 쓰자 하면.

20세기 문지방, 문찌방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문지방, 문찌방

출처 1913 부별천자문 20ㄱ

용례 09

문헌 용례

閾 문지방 역.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2 고목화:125

용례 10

문헌 용례

비슬비슬ᄒᆞ며 문지방을 걸치고 엎드러지니.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3월 24일 5면

용례 11

문헌 용례

문찌방에 쓱쓱 문대여 버리거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동아일보 1월 25일 6면

용례 12

문헌 용례

다리의 힘이 풀려 문찌방에 허리를 걸치고 쓸어젓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문씨방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문씨방

출처 미상 속회심곡 154

용례 13

문헌 용례

문씨방을 가로 잡고 번기 갓튼 눈을 쓰고.

현대어 풀이

문지방을 가로 잡고 번개 같은 눈을 뜨고.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문지방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문지방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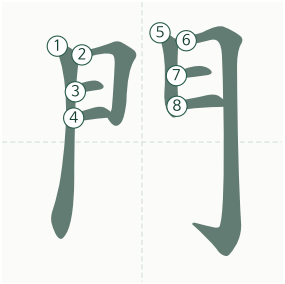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門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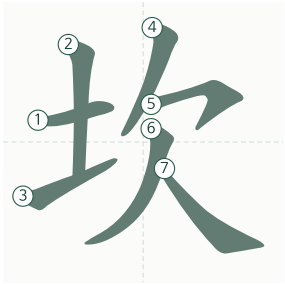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門/

坎 뜻·음 구덩이 감

총 7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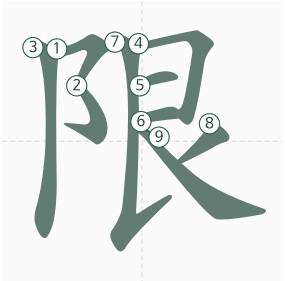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坎/

限 뜻·음 한할 한

총 9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限/

棖 뜻·음 문설주 정

총 12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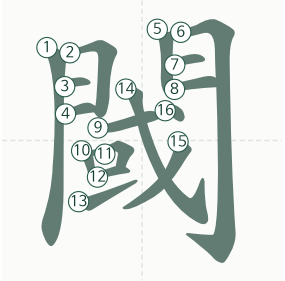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棖/

閾 뜻·음 문지방 역

총 16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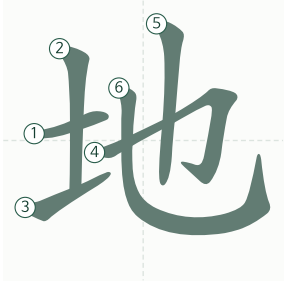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閾/

地 뜻·음 따 지

총 6획 · 부수 土





hanja.wordrow.kr/한자/地/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2 / 2 · 9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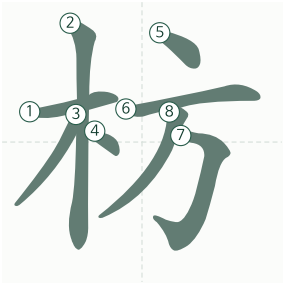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枋

뜻·음 다목 방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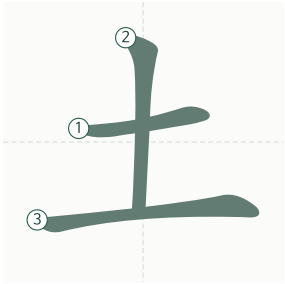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枋/

土

뜻·음 흙 토

총 3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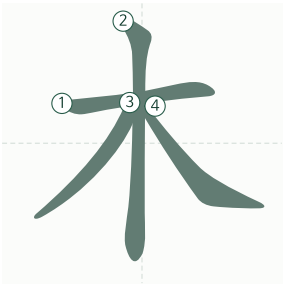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土/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闌.